

Magazine

새벽종

2023 09·10 제10호

일상속 히어로

새벽종

2023 09·10 제10호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친환경 종이와 공기를 인쇄로 제작되어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Prologue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시련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죠.
어떤 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훌훌 털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혼자 헤쳐 나갈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
해낼 수 있다는 희망,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 같은 긍정의 힘을 얻게 되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히어로입니다.



Contents

2023 09+10 제10호



06	Focus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및 세미나
10	펼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새마을운동의 힘
12	어울림 일상 속 히어로가 된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
16	누림 '유점'도시 대전 - 대전광역시 여행
20	Interview 초록 바람, 추억이 되대 희망이 되대!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작가 인터뷰
24	새마을 아카이브 기초환경 개선·생산기반 구축 사업 기록물 편

26	새마을 사람들 1 새마을운동의 내일엔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 제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
30	새마을 사람들 2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박황균 경기 연천군 미산면협의회 새마을지도자
34	대학새마을동아리 새마을운동, 청춘의 열정을 담다 -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해단식
38	지구촌새마을운동 지구촌 곳곳으로 스며드는 새마을 바람 - 피지 & 키르기스스탄
42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식집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46	중앙회 소식
47	시·도 소식
50	현장은 지금
58	새마을 통통통

발행일
2023년 9월 25일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발행인
곽대훈

기획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T. 031-620-2371~5
F. 031-620-2379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광고·구독·주소변경
T. 031-620-2373
magazine@saemaul.or.kr

본지에 게재된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거진 <새벽종>을
휴대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agazine



Webzine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및 세미나

국내를 넘어 세계가 인정한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았다.
이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다양한 활용·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특별전시 및 오픈 세미나가 열렸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1



2



3

- 1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관식에서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내빈이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는 모습
- 2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특별전시관에서 관람하고 있는 모습
- 3 특별전시관 재전시장 내에 전시된 새마을운동기록물 사진전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새마을청소년교육장에서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일반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통령 연설문, 행정문서, 마을회록, 성공사례 원고, 편지, 기증서 등이 기록된 새마을운동기록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의 발전을 이룬 성과로, 인류의 소중한 자산 가치로 인정받아 2013년 6월 총 22,084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초록바람, 추억이 되다! 희망이 되다!’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시는 53년간 지속된 새마을운동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과 새마을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의미를 담아낸 현대미술전으로 진행한다. 제1전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비롯해 53년간 지속된 새마을운동의 노력과 땀의 시간을 사진전으로 담아냈다. 제2전시는 미래 100년을 위한 지구환경 보전 환경미술전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한 환경 인식의 변화를 표현해 현재 새마을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담았다. 중앙회는 특별전시 기간 동안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남시 초등학교 학생 및 어린이집 원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시해설, 체험활동, 협동게임 등 무료 전시·체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이날 특별전시 개관식에 앞서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오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광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기조 발제가

있었다. 이후 새마을운동기록물 기록유산의 가치와 미래, 기록물을 통해 본 새마을운동의 과제 등에 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광 회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삶의 수난을 기록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모든 변화와 성장, 그리고 연대의 발자취가 바로 새마을운동기록물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세미나에서 다시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와 함께 잘 살기 위한 방향에 대해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새마을운동의 힘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누적 강수량 역대 3위, 일평균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존 장맛비와 다르게 기후변화로 매년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기록적인 폭우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폭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사망사고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가와 축사, 도로 등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새마을회원들은 전국의 수해복구 현장에 누구보다 발 빠르게 달려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더했다. 지난 여름 새마을회원들이 전국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전개한 활동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2023. 7. 31. 기준)

전국 피해 현황

주택 · 농경지 침수, 농작물 · 축사 피해, 과수원 · 논 · 밭 소실, 제방 · 도로 · 전봇대 유실 등

인명피해



55^명

이재민



5,883^{세대}

복구활동 현황

모래주머니 비치 및 적재, 토사 정리, 침수지역 청소 및 복구 작업, 농경지 정리, 농작물 수확, 하우스 복구, 부유물 제거 및 시설 정비, 이재민 식사 봉사, 간식 및 생필품 전달, 수해복구 성금 전달 등

성금



1,400^{만 원}

성품



라면, 도시락, 생수, 김밥, 휴지, 물티슈 등

참여 인원



3,683^명

활동 장소



109^{개 소}

일상 속 히어로가 된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수해를 입었으며, 누군가는 다치고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은 마치 내 일인 듯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손길을 뻗었다. 일상 속 히어로, 그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누빈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회장 조승희)는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류를 지원했다.

재난 현장 곳곳에 새마을지도자 복구활동 구슬땀

장마라는 말이 무색해진 여름날,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 곳곳에 쏟아졌다. 순식간에 터널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도로가 끊어졌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와 함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을 결성한 새마을지도자들이 3,6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109개의 수해 지역 현장을 찾아가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농경지 정리, 축사 토사 정리, 농작물 하우스 복구, 강가 쓰레기 및 부유물 수거, 교각 정비, 논둑 복구, 상가 집기 정리, 침수 가구 청소, 유실 도로 복구, 공공시설 정비 등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다. 복구 작업뿐만 아니라 반 지하 주택 및 상가 등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폭우에 대비하는 한편, 휴지, 물티슈, 라면, 도시락, 생수, 의류 등의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섰다. 1997년대 외환위기 때 새마을부녀회는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으로 무려 370만 톤의 금을 모았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이끌어냈다. 또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를 까맣게 물들인 기름유출 사고 당시에는 절망으로 얼룩진 지역민과 어민들의 마음을 진심 가득한 위로와 손길로 닦아주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팽목항에서 묵묵히 유가족의 식사를 챙기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 2019년 강원도에 대형 산물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앞장섰으며, 몇 년간 이어진 팬데믹 때에는 방역 활동과 마스크 제작, 취약계층 성금과 생필품 전달,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쳤다. 이렇듯 크고 작은 재난에 항상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들의 히어로처럼 나타나 자발적인 봉사 활동과 마음으로 이웃의 슬픔을 나눴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복지와 돌봄 체계 강화, 문화복지 사업, 시민의식 함양 교육 등에 그 누구보다 힘써 왔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우리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각자도생이 삶의 핵심 방식이 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이기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된다면 우리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연대할 수 없으며 사회는 정체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새마을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그 누구보다 힘써왔다. 이를 위해 복지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복지 사업으로 사회적 자본 증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의식 함양교육 등으로 지역사회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신경 쓰고 있다.

새마을 사회안전망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아동 돌봄' 사업과 '성인 돌봄' 사업이 있다.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아동 돌봄 활동은 물론 학습지도,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한다. 또 성인 돌봄 사업은 홀몸 어르신, 소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랑의 집수리 활동, 김장 김치 나누기, 사랑의 빨래방 운영, 복지순찰대 운영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사업 전개로 단단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좋은 이웃 만들기'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식 교육, 아파트 공동문화 캠페인, 우리 마을 분쟁

해결센터 운영, 3대가 함께하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 행사 등으로 주민화합과 공동체 이익을 저해하는 이웃 분쟁 근절과 이타적 공동체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독서 생활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창조적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관내 청소년, 주민,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독서캠페인 및 경진대회를 열고,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문화 바로 알리기 활동을 진행하며, 마을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발굴을 돕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시민 의식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통해 사회에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재난 재해 예방 활동 및 복구 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

- 1 경북 구미시새마을회 수해복구 활동
- 2 충남 부여군새마을회 수해복구 활동
- 3 대구새마을회 수해복구 활동
- 4 인천시새마을회 수해복구 활동
- 5 서울시새마을회 수해복구 활동



‘유잼’ 도시 대전

대전광역시 여행

예부터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였다. 전국을 오가는 고속열차를 타면 어딜 가더라도 중간에 늘 대전역을 거쳐 간다. 대전을 관광한다는 말이 조금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주옥같은 여행지가 가득하다.

글. 편집실

재미로 가득한 도시 대전

대전은 늘 관광과는 거리가 먼 도시처럼 느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전’하면 떠오르는 유명 관광지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노잼 도시’로 각인되었던 대전이 몇 년 사이 ‘유잼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게다가 사통팔달 접근성이 뛰어나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하다. 일단 대전을 여행하기에 앞서 어떤 대전을 즐기고 싶은지를 정하는 것이 좋다. 대전은 생각보다 넓고 또 구석구석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가을에 딱 어울리는 여행지로는 장태산자연휴양림이 있다.

대전 서구 장태산 기슭에 조성된 장태산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자연휴양림이다. 이곳의 특징은 메타세쿼이아 숲으로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 낸다.

대전은 빵지순례로도 유명하다. 대전역에서부터 시작한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빵지순례자들은 지점별로 빵이 나오는 시간정보를 찾을 정도로 열정적이다. 튀김소보루, 판타롱부추빵 뿐만 아니라 시루떡같이 딸기를 층층이 쌓은 딸기시루 케이크도 유명하다. 레트로 감성을 즐기고 싶다면 대전역 뒤에 있는 소재동을 추천한다. 시간이 멈춰있던 과거 철도관사촌을 음식점, 카페 등으로 개조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 밖에도 과학 도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꿈돌이의 추억을 소환하는 한빛 광장, 도심 속 고즈넉한 수목원인 한빛 수목원 등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



이곳만은 꼭! 대전 서구새마을회가 추천하는 대전 여행



장태산자연휴양림
하늘 높이 솟은 메타세쿼이아가 아름다운 장태산자연휴양림. 휴양림 내 '숲속 어드벤처'에는 메타세쿼이아 숲과 눈높이를 맞추며 걸을 수 있도록 설치된 스카이웨이와 아름다운 휴양림 전경을 볼 수 있는 스카이다워가 있는데, 방문객들이 찾는 필수 코스이다.
📍 대전 서구 장안로 461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과학공원은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승·기념하기 위한 테마공원으로 대전 엑스포 기념관, 세계엑스포기념박물관, 첨단과학관 등이 있다. 상징탑인 한빛탑에서는 대전의 주요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85



계족산 황톳길
계족산 황톳길은 장동산림욕장에서 시작해 임도삼거리와 절고개를 거쳐 이현동 갈림길까지 총 14.5km를 맨발로 걷는 전국 최초의 건강 여행길이다. 매년 맨발 마라톤, 숲속 맨발 걷기,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 대전 대덕구 장동 453-1



한밭수목원
한밭수목원은 정부대전청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사이에 위치한 도심 속 전국 최대의 인공수목원이다. 각종 식물 중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는 한밭수목원. 청소년들에게 자연 체험학습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소제동 관사촌 거리
소제동은 100년 전의 도시구조와 그 당시의 옛 마을과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과거의 건물 위에 개성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소제동의 역사와 근대건축물(철도관사촌)에 대한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 대전 동구 소제동



대전 오월드
대전오월드는 동물과 식물, 놀이기구와 테마쇼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이다. 한국 늑대를 만나볼 수도 있으며 신비로운 나이트 유니버스에서는 홀로그램쇼와 음악분수 워터쇼 등을 보며 환상적인 밤을 보낼 수 있다.
📍 대전 중구 사정공원로 70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구새마을회는 대전 중에서도 정부청사, 시청, 법원 등이 밀집한 행정중심지와 교육, 유통, 의료, 비즈니스 및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장태산과 갑천, 한밭수목원 등 산천이 조화로운 대전의 중심도시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오명관 협의회장, 김화자 부녀회장, 이신재 직장회장, 이제민 문고회장을 포함한 1,002명의 새마을지도자가 활동 중입니다.

서구 새마을회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사각지대 돌봄, 좋은 이웃 만들기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사업, 독서 생활화로 창조적 지역 문화 창달, 세대와 지역, 도농 간 교류협력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실천운동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복 입기 생활화와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 친환경생활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원재활용의 활성화,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EM(유용미생물군)흙공 던지기 등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남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2023년 4월 산직동에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저희 새마을회에서는 산불진화대 급식봉사 및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피해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불진화대를 위해 이틀간 매끼 500여 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배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잔불 제거 현장에도 투입되어 산림 수호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대전 서구새마을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소외계층 주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생활용품과 음식 등을 후원하여 지역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의 샘물' 책 발간 사업입니다. 이 책은 독서문화운동의 하나로 16개동 문고지도자와 관내 학생들의 독후감, 편지글 등의 작품이 담겨있고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6,000여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사업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상반기에는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 후원회원(CMS) 모집 배가 운동을 벌였고 청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 구성과 운영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 예정된 새마을조직 지도력 교체의 해를 앞두고 남은 회장단의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새마을회



(왼쪽부터) 이제민 문고회장, 김화자 부녀회장, 이경용 새마을회장, 오명관 협의회장, 이신재 직장회장

초록 바람, 추억이 되다! 희망이 되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작가 인터뷰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인류의 절대 과제인 빈곤 탈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로 성장한 새마을운동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특별 전시 '초록바람, 추억이되다! 희망이 되다!'에 참여한 작가들을 만났다.

글. 이소연 사진. 이민희

먼저 전시를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김용기 저는 1층에서 열리고 있는 제1전시인 '새마을운동과 사람들'에 참여했는데요. 늘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왔어요. 새마을운동이 제가 생각하는 모습에 딱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용 저는 건축 관련 일을 하다 보니 평소 버려지는 폐자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자재들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혼자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의 작품을 조윤서 작가님께서 보시고 이번 전시에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창 저는 평소 환경과 업사이클링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한다기 보다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저의 생각과 이 전시의 취지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저는 평소 '버려지는 택배 상자와 계란판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으로까지 확장한다고 하니 '이거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윤서 저는 자연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평소에도 훼손되어 가는 자연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마침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다고 해서 제가 평소 가까이 지내는 작가님들께 연락드렸어요. 주변 작가님들이 평소에도 환경이나 재활용을 통한 작품 활동에 관심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작품마다 작가님들의 개성이 한껏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기 저는 주로 '크로키'라는 작업을 합니다. 크로키는 빠른



(왼쪽부터) 조윤서 작가, 권순창 작가, 김태용 작가, 김용기 작가

시간 안에 형태와 특징을 단순한 선묘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다양한 크로키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노동을 꾸밈없이 보이게 하는 것, 그 형상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자연환경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술의 궁극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용 이번 작품들은 폐합판을 이용했고요, 주로 뜯어내고 파헤쳐서 덜어내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폐합판 위에 인부들이 적어놓은 숫자나 글씨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글씨들은 지나간 사람들의 손길과 시간을 담고 있죠. 다른 공간에서 쓰임을 다한 소재가 또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즐거움이었습니다.

권순창 이번 작품들은 '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업했습니다. 환경위기로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 꿈에서 보았던 새로운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꿈같은 세상'이라는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누구나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세상이요.

정현철 이번 작품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 구성했습니다. '히어로'와 '애니멀' 시리즈입니다. '히어로' 시리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을 소재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이죠. '애니멀' 시리즈는 인간이 펼쳐온 기술 발전으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었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지구에 사는 수많은 생명, 특히 동물들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모두 택배 상자와 계란판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기 <일하는 남자>
힘든 시기에도 묵묵히 일하는 남자의 뒷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남자의 땀과 노력이 느껴진다.



김태용 <TIME, SPACE(ARGUMENT)>
서로 찢고 파내어 상처주는 것들을 묘사한 작품이다. 서로 관점이 다른 나와 타인에 대해 생각해볼게 된다.



권순창 <내가 꿈꾸는 세상>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던 동산이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조윤서 <화려한 희망으로 물들다>
봄과 여름을 지나 화려하게 농익은 세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정현철 <악어의 눈물>
눈물의 의미가 아니라 '악어의 눈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차용한 작품이다. 인간이 편하기 위해 파괴한 환경이 결국 인간을 힘들게 하자 환경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꼬집는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한다.

조윤서 저는 볼륨감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조명이 그림에 닿았다가 반사될 때, 더욱 돋보이게 색을 입히는 편이죠. 시기별로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연작하는 편이고요. 이번 작품에는 자작나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김용기 저의 작품 속에 표현된 일하는 사람의 모습과 움직임에서 온정을 느끼고, 땀과 열정을 통해 생명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용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함께 소통하면 모든 갈등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권순창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흉흉한 소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철 버려지는 쓰레기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듯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윤서 순수한 자연을 표현한 제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에 의해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임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작품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용기 평생을 전업 작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많은 사람에게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모습과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김태용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통해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래된 것의 소중함'에 대한 작품도 만들어 보고, 제 작업을 통해 모두가 이해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권순창 사회를 정화시키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작품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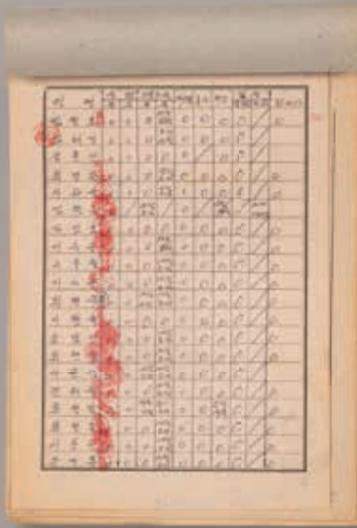
정현철 꾸준한 업사이클링 아트 활동을 하면서 지구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조윤서 후진양성과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행복과 위로를 주는 작가가 되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을 미래지향적으로 가꿔 나가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요. 🌱

더 나은 삶을 위한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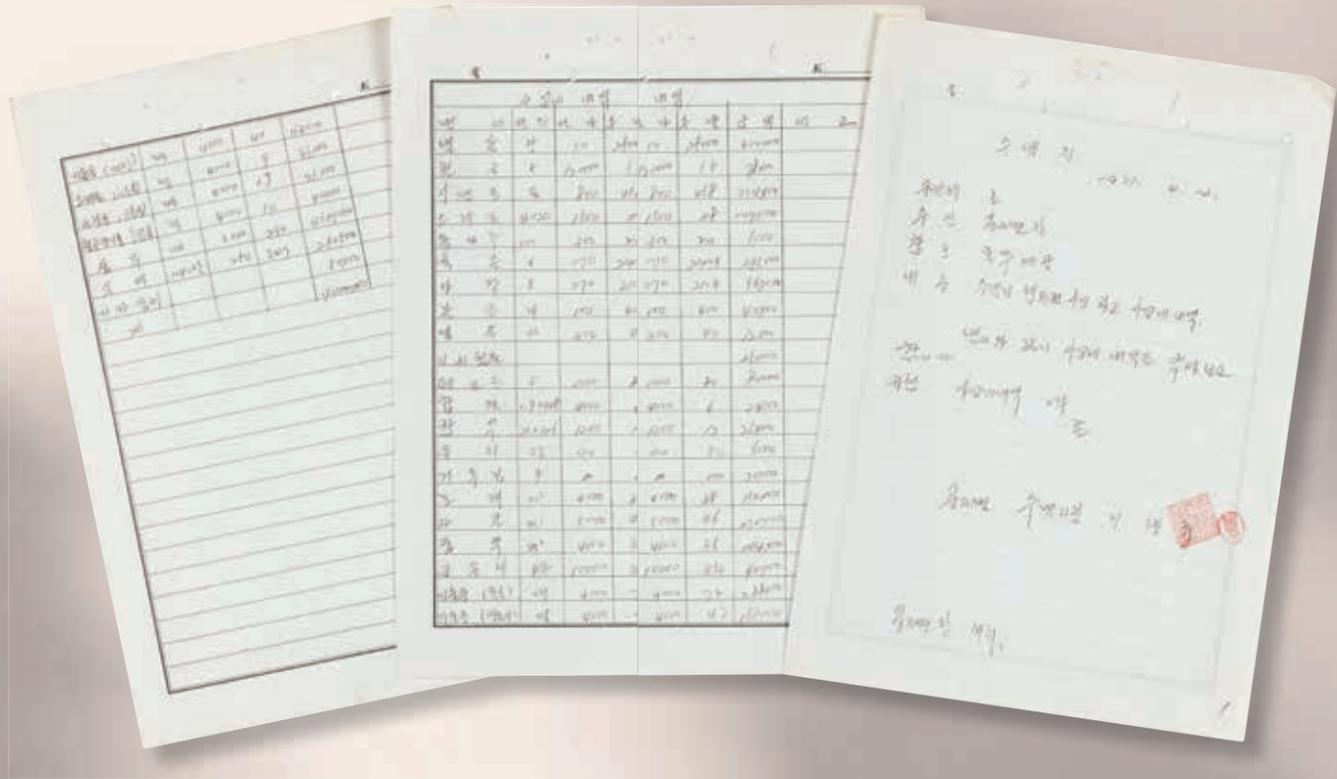
마을단위기록물:

기초환경 개선·생산기반 구축 사업 기록물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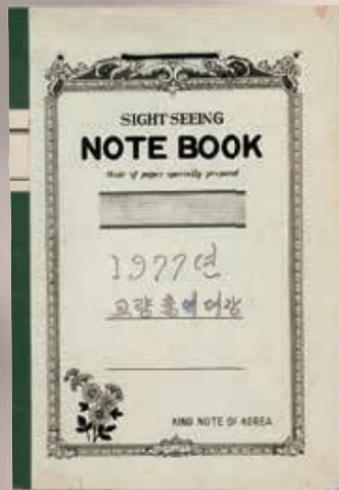
환경개선사업 추진대장

1979년 | 19.5×27 |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2리 | 국가지정·유네스코기록
마을에서 실시한 환경개선사업의 가구별 추진현황을 기록한 장부이다. 사업의
주요 항목은 지붕개량 및 도색, 부엌·변소·축사·퇴비장·담장의 개량,
간이급수 설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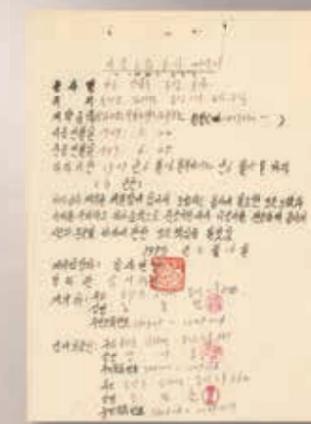
협동권 사업 창고사업비 내역

1977년 | 19.5×27 | 강원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이장 이항규 | 유네스코기록
마을 이장이 협동권 창고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면장에게 제출
한 문서이다. 자재별 단가, 노임 단가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새마을사업의
관리가 세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량건설 출역대장

1977년 | 19×26.5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2리 | 유네스코기록
마을 내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출석 여부가 꼼꼼히 기록된
장부이다. 행정기관에서는 교량 건설에 필요한 설계서, 준공서 도면과 건설지침 등을
제시했고 주민들은 땅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 결과 내 손으로 큰 사업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더불어 교통 불편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도급공사 계약서)

1979년 | 17.8×25.5 | 경기 용인군 남사면 통삼1리 동막마을 | 유네스코기록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남사면장이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동막마을에
도급을 준다는 계약서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된 '잘살기 운동'이다. 활동은 문
서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으로 제작됐다. 특히 성
공적인 농촌 부흥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써 중요한 사
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2023년 '새마을 아카이브' 코너에서는 한국 농촌 근대화의 실록
인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주제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가치와 의의
를 전하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의 내일엔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제1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

지난 6월, 새마을운동중앙회 4강의실에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138명의 시도별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과 대의원이 참석한 이곳에서 제1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이 세워졌다. 새마을운동의 내일을 이끌어갈 다음세대가 세워진 것이다.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이끌어 나갈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김다운 사진: 김병구

먼저 회장단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새마을운동에 대해 잘 알고 계셨나요?

배진호 솔직히 저희 세대는 새마을운동을 많이 접했던 세대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학교에서 배운 박정희 대통령이 '잘살기 운동'을 통해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발판을 놓았다는 교육적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죠.

김종명 저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청도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새마을운동이 활발했죠. 청도군 사람이려면 누구나 새마을운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잘 알고 있어요.

청년새마을연합회에 어떠한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진호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보육원이나 장애인 시설, 지역의 환경 봉사 등을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배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고, 김하윤 교수님을 만나 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슈봉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청년새마을연대'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더 큰 봉사의 꿈을 꾸고자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현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광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광주에서는 청년새마을연대가 4월에 발족했는데, 그 출범식에 지인을 따라 참석하게 됐죠. 그 행사에서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 함께 간 지인이 제게 청년을 위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서 이번에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부회장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명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일이라 생각하고 옛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러한 현실이 사실 안타까웠어요. 1970년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었던 큰 원동력 중 하나가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마을정신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잘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새마을운동을 이어갈 청년들의 부족을 큰 아쉬움으로 꼽는데요, 청년새마을연대가 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에 청년새마을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시나요?

배진호 저는 청년새마을연대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리(Bridge)'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분들을 서포트해야 할 새로운 인재들의



전국청년
새마을연합회



● 배진호 회장



● 김현우 부회장



● 김종명 부회장

필요성이 커졌고, 그 일환으로 대학새마을동아리가 만들어졌으니깐요. MZ회원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청년새마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우 청년세대가 스스로 책임지기 바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새마을연대가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세대에게 협력의 가치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명 현재 대한민국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 지역소멸 등 다양한 위기가 존재합니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의 공동체 정신을 잘 계승한다면, 한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해요.

새로운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실까요?

김종명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롭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딱딱하게 격식을 차리는 단체가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하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여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우 먼저 Play, Fun이 있는 공간과 문화적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리더들을 모셔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벤트를 제안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필요한 새마을정신은 무엇일까요?

김현우 서로 돕는 정신, 그리고 함께 도전을 시도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실패가 두려워서 머리로만 계산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도전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명 기후 위기, 전염병, 세대갈등, 지역갈등, 젠더갈등 등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많아졌죠. 이러한 위기는 개인이 혼자 감수할 수 없어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해결해야 해요.



새마을정신이 바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진호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보여준 정신은 대한민국이 위기일 때마다 극복할 수 있다는 정신이었어요. 지금도 이 새마을정신으로 이웃사랑과 국민결속을 유지하는 선배님들이 계시고요. 이 모습을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잘 배우고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새로 창단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배진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획은 청년새마을연대가 앞으로 영속성(永續性)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단단한 초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광대훈 중앙회장님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권역별 간담회를 했어요. 지역별 청년새마을연대회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1월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의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어요.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기부와 활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2023년 연말 평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활동했던 활동 실적, 단합 활동, 분임 토의 등을 통해 조직의 다양한 활동 및 공모사업 부분을 공유하고 평가·시상할 계획이에요. 또한 내년에는 청년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새마을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년기업의 창립, 봉사 단체의 확산,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광대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중앙회 관계자분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배진호 우리 모두가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주동적으로 활동에 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전국의 모든 청년새마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김현우 자주 보고 웃으면서 함께하는 여정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지닌 재능을 활용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김종명 새마을운동을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나갈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교육 열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8월 18~19일 1박2일 동안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새마을운동과 청년새마을연대를 소개하는 강의와 AI 기술과 청년새마을 활동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더불어 다양한 참여 활동과 사례발표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례발표 시간에는 박승철 회장(부산진구청년새마을연대)의 발표를 비롯한 이종경 단장(경기(전)이천청년연합봉사단), 전종균 회장(서울 성동청년봉사단작은거인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서 소개된 제빵체험교실, 폐현수막 재활용 운동,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등의 활동 사례와 노하우 등은 추후 청년새마을연대가 활동을 전개할 때 바로 적용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으로 구성된 청년새마을연대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를 중심으로 삼아 새마을운동 회원단체와 상호교류·연대를 이어 나가고 있다.

대학새마을동아리와 새마을지도자 사이에서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전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8월 3일, 안산시청년새마을연대는 안산시새마을회와 함께 괴산군을 찾아가 침수 농가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읍에서는 지난 8월 9일,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초산동새마을부녀회를 도와 홀몸 어르신과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 찻집을 운영했다. 사천시청년새마을연대는 지난 8월 18일, 발대식과 함께 사천시새마을회와 '청년과 함께하는 쓰담쓰담 줌깁데이'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청년새마을연대 구성원은 재능기부활동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동참하며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황균 경기 연천군 미산면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박황균 지도자는 오늘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그가 없는 연천군은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몸이 바쁜 만큼 덩달아 휴대전화도 늘 바쁘게 울려댄다. 여기저기서 찾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다. 그래서 박황균 지도자의 차엔 언제나 무엇이든 똑딱 만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한가득이다. 그가 연천군의 박 반장이라 불리는 이유다.

글. 왕보영 사진. 전경민

무엇이든 똑딱, 우리 동네 '박 반장'

“오늘 아침 8시에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풍에 나무가 부러졌는데 하필이면 길을 가로막아 차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오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출동했죠.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기에 밤새 마음 졸였는데, 큰 피해 없이 이 정도이길 천만다행이죠.”

박황균 지도자의 삶 대부분은 새마을운동으로 가득 차 있다. 사실상 미산면 나아가 연천군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나 행사에 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떠들썩하던 지난 몇 년간은 매주 화요일이면 마을을 돌며 방역 활동을 했고 2016년부터 2022년 1월까지인 분기별 국토대청결운동의 날을 정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활동을 도맡았다. 또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집수리 활동,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병 수거를 통한 장학금 기금조성, 제초 작업 등 무수한 활동들이 이를 증명한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일뿐, 비공식적인 활동까지 더하면 하나하나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다. 마을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틈틈이 살피고 마을을 돌보는 것은 물론, 연천군새마을회관 내 방충망, 화장실, 보일러 등 그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여기 사무실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우리 박 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구입해 두라고 하더니 다음날 방충망을 똑딱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액자처럼 예쁜 방충망 보셨어요? 전 생전 이런 건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어쩔 이렇게 말만 하면 똑딱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분이죠. 우리 연천군에 박 지도자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평소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해 내색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박황균 지도자를 보다 못한 김형순 사무국장이 말을 보탰다.



어떤 이에겐 하루도 버거운 봉사일 텐데 1년 365일 봉사에 이렇게나 열정적일 수 있는 이유를 묻자 “좋으니까 합니다” 라고 답하는 박황균 지도자다.

“여기 사무국장님과 과장님, 특히 지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따라가기 바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좋아요. 보여 주 기식이 아닌 현장에 가서 몸으로 일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좋거든요.”

새마을운동, 관심에서 삶이 되기까지

그가 새마을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의 일이다. 박 지도자는 가구 인테리어 관련 일에 종사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고, 고박 20개월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다. 꾸준한 재활치료로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리가 불편했다. 당장 일을 시작할 수는 없겠고,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운동 삼아 마을 일을 도와볼까 하던 찰나 새마을지도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장님이 당시엔 이름만 올려도 되고, 크게 하는 일 없다며 제 안하셨는데... 일이 없진 않더라고요? 허허. 지금은 제 삶의 일부나 다름없지만요.”

새마을지도자가 되어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주로 마을이나 면사무소 등과 일을 했다. 꾸준히 새마을지도자 활동이 이어가다 2016년에는 협의회장이 되었다.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했을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였을 땐 당장 보이는 봉사활동에 집중했다면 협의회를 맡았을 땐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나 비전 같은 것들이 보였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아쉬운 건 새마을운동을 이어갈 새마을지도자의 부족이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새마을운동을 이어 나갈 젊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비단 연천군만의 고민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보다는 ‘나’가 중요한 사회가 되면서 새마을지도자가 있어도 공동체의식과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도 사실이다.

“뽕을 사람이 없어요. 마을 이장님이 겨우겨우 부탁해야 할 정도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했던 사람들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어야 분위기 전환도 되고, 파이팅 넘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사람이 없다 보니 박황균 지도자는 늘 분주하다. 여기저기서 찾아주시니 감사한 마음이지만, 일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시간과 몸이 모자란 것이 한없이 아쉽다고 말하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내는 그다.



1



2

1 얼마 전 집수리 활동을 한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새로 구입한 선풍기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2 어르신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택 입구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3 곳곳에서 꾸준한 봉사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연천군 박 반장이라 불리는 박황균 지도자



3

마음으로 하는 일

어쩌면 그의 봉사는 새마을지도자가 되기 이전부터 시작이었던 지도 모른다. 파주에서 살던 박 지도자가 이곳 연천으로 터를 옮겨 왔을 당시, 이웃 어르신들의 고장 난 물건이나 불편해 보이는 살림살이 등을 사부작사부작 고쳐드렸는데, 그게 마을에 소문이 났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 앞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곤 했다고, 일하라 이웃들 살림살이 살피라 그렇게 1년여를 정신 없이 보냈는데, 주민들이 그해 여름엔 참외, 수박, 토마토를 가을엔 햅쌀을 이고 지고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어르신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쌈짓돈일 텐데...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제 돈으로 사서 고쳐드렸죠, 돈을 준다고 하시는 것도 한사코 마다했더니, 직접 농사지는 과일이며 곡식이며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마저도 괜찮다 하니 저 없는 사이에 쌓아놓고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동하여 한 일인데 몇 배로 마음 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어떤 이에겐 하루도 버거운 봉사일 텐데, 1년 365일 봉사에 이렇게나 열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1초의 고민도 없이 “좋으니까 합니다. 아마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으면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박황균 지도자다. 교통사고 이후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새마을지도자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교통사고 이후 건강을 제법 되찾았다고 생각한 그에게 대장암 말기라는 시련이 닥친 것이다.

“머리가 하얘졌죠.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속으로 우리 딸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수술하고 좋아졌어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또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내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시간을 더 주는 구나!’ 라고요.”

박 지도자는 그때의 마음가짐과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을 매일 되새긴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연천군새마을회가 저보다 더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제 몸을 값지게 쓸 수 있게 해주니 저는 열심히 따라갈 뿐이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후에는 얼마 전 집수리 활동을 한 어르신 댁으로 새로 구입한 선풍기를 가져다드릴 겸,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안부를 물으러 갈 예정이라며 준비하는 그다. 늘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으로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연천군의 박 반장 박황균 지도자. 그가 누비고 다닌 곳곳마다 따듯한 온정이, 행복이 피어난다. ☺

새마을운동, 청춘의 열정을 담다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해단식

지난 7월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피지와 키르기스스탄 2개국으로 각각 2주씩 20명의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출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귀국한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이 지난 8월 활동을 보고하고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글. 이소연



열정으로 떠난 피지 · 키르기스스탄

지난 7월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이 각각 2주의 일정으로 피지와 키르기스스탄으로 출발했다. 출발에 앞서 개최한 발대식에서 "새마을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지구촌 공동체 일원으로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봉사를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던 선언문처럼 현장으로 떠났던 대학생 봉사단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봉사에 임했다.

현장에 도착한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은 열악한 환경에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다. 평소에도 새마을동아리에서 활동을 이어왔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도착한 현장이었음에도 예상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놀랐다. 하지만 금세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준비해 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피지 · 키르기스스탄에 꽃피운 젊음의 새마을운동

먼저 부서지거나 무너질 것 같은 건물들을 손보기 시작해 건물의 기초 공사, 도색과 벽화 그리기 등 마을 전반의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현지 주민들과의 협업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고, 봉사단의 적극적인 리더에 현지 주민들이 잘 따라주어 작업의 속도도 빨랐다.

환경 정비와 함께 여자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도 실시했다. 덥고 습한 환경적인 특징 때문에 전염병과 감염병에 취약한 데다 보건 위생 인식 또한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미용 봉사를 겸하여 개인 청결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현지 아이들에게는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놀잇거리가 부족한 아이들은 금세 따라 하며 즐거워했다. 또한 피지와 키르기스스탄 역시 K-POP에 대한



Saemaul





Fiji

Kyrgyzstan



관심이 높아 대학생 봉사단이 준비해 간 K-POP 안무를 선보이자 열띤 호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한국어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한글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2주간 별다른 사고 없이 준비해 간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전원이 무사히 귀국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의 성공적인 활동 종료를 알리는 해단식이

열렸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해 시도 새마을회 사무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해단식에서는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의 주요 활동 결과 발표와 활동 영상 시청, 활동 증명서 수여 및 우수 단위 시상 등으로 진행했다. 활동 영상과 사진 등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피지 활동 결과 보고는 해외봉사단 대표로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김은서 학생이, 키르기스스탄 활동 결과 보고는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김미경 학생이 각각 발표했다. 활동 보고 내내 청춘들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패기를 엿볼 수

있었으며 해냈다는 성취감에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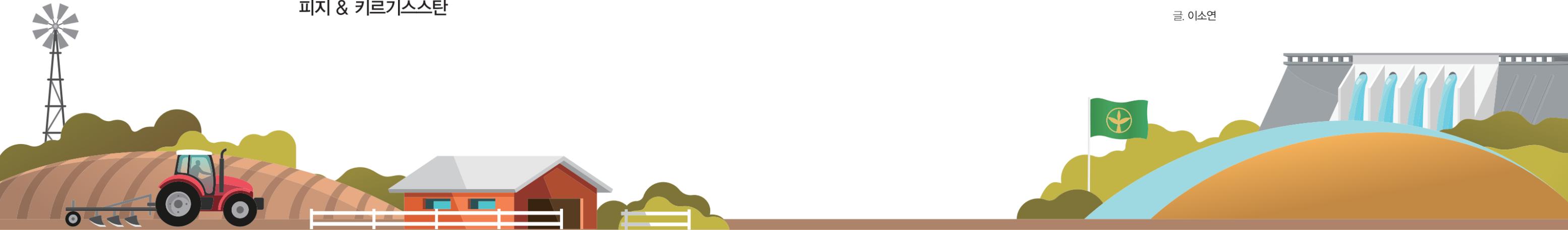
봉사단의 활동 보고 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이번 봉사 활동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더 성장하고 자기 스스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으로 늘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한편,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의 성공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을 모집하고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꾸준히 이어질 청춘들의 새마을운동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엔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나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환경이 열악한 나라로 봉사하러 간다는 것은 보통의 열정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며 공동체정신을 실현하는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있어 새마을운동이 더욱 빛이 나는 것은 아닐까. 청춘의 열정이 가득 담긴 새마을운동,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의 꾸준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

지구촌 곳곳으로 스며드는 새마을바람

피지 & 키르기스스탄



지구촌 곳곳에서 잘 살기 위한 노력은 눈물겹다.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바로 그 지점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새마을운동은 가장 멀고 구석진 작은 마을까지 빠짐없이 나아갈 것이다.

글. 이소연

내전과 쿠데타로 상처받은 피지, 새마을운동으로 극복 시작!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는 식민지 시절과 부족 간의 내전, 그리고 거듭되는 쿠데타로 오랜 시간 사회가 불안정했다. 그러다 2010년도 들어서야 비로소 국가가 정상화되었다. 모든 국가의 정부가 그렇듯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빈곤 탈출일 것이다. 피지 역시 오랜 전쟁과 수탈로 빈곤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이 필요했다.

지난 2018년 2월, 피지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지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실라나, 마우, 나이마시마시 세 곳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다.

세 곳의 시범마을은 정식 시범마을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곳으로 어느 곳보다도 '잘 살기' 위한 열정이 뜨거운 마을이었다. 실라나마울은 2016년에 마을 지도자가 선제적으로 새마을 교육을 수료한 이후, 마을 환경정비 및 복원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민총회 이외에 마을 발전을 위한 청년회와 부녀회 등이 잘 조직되어 있어 앞으로의 새마을운동

경과 및 결과가 기대되었다. 또한 시범마을 세 곳 중 가장 큰 규모인 마우마을은 수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로 접근성이 좋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수도인 수바로 출·퇴근하고 있어 외부 사정에 밝은 편이었다. 이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며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범마을 세 곳 중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나이마시마시마을은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새마을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의욕이 넘쳤다. 또한 주민 자치 조직이 잘 결성되어 있고 정기적인 모임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마을 정비에서 국토 개발로

이후 시범마을 세 곳은 마을 안길 정비를 시작으로 우기와 태풍에 대비한 댐 건설, 식용수 확보, 마을 하천 교량 건설 및 보수를 통해 마을을 안팎으로 정비해 나갔다. 또한 마을 주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교육 시설 확충과 마을회관 확대 개편 및 대대적인 시설 보수도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시범마을의 새마을운동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피지 새마을운동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피지 국토개발10개년 계획'의 새마을운동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서 피지 농촌해양개발부장은 피지 시범마을에서 큰 성과를 이룬 새마을운동에 놀라고 감사해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피지 전 지역으로 새마을운동이 확산하여 빈곤 탈출과 사회 경제 발전을 이루길 희망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그 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한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 국가의 빈곤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피지 시범마을인 마우마을 주민들이 새마을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2 피지 새마을운동 워크숍

키르기스스탄의 난관, 새마을운동으로 헤쳐가다

새마을운동과 키르기스스탄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키르기스스탄 연수생들이 새마을운동 초청연수를 수료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 새마을운동센터(새마을회)를 결성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새마을운동센터가 공식 조직으로 법인등록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인 새마을운동으로 마을들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자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새마을시범국가로 선정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지로 날아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안내한 네 개 마을은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가구수가 많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조에 입각한 마을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시범마을 선정이 보류된 것이다. 그러나 난관은 헤쳐가고 있는 것!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발전과 주민 교육이 절실했던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적극적인 마음이 통했다. 2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다.

2차 사업 타당성 조사 이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선정이 이루어졌다. 1차로 2017년~2021년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네 개 마을, 이스크라, 아랄, 코쉬코르곤, 악바샤트를 선정해 마을별로 2,400만 원씩의 지원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각 마을의 환경과 주민들의 참여도에 맞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선정해 기반을 조성했다. 이스크라마을과 아랄마을 지역에는 젓소와 육우 사육을 시작했고

코쉬코르곤마을과 악바샤트마을은 과수원과 제빵 사업, 온실과 양계장 등을 먼저 시작했다. 네 마을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교육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이 잘 정착되었으며 마을 전체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까지 키르기스스탄 내의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위해 새마을운동은 계속된다!

1차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던 이스크라, 아랄, 코쉬코르곤, 악바샤트 네 개 마을의 새마을운동 추진결과 마을별로 시작한 기반 사업들은 자리를 잘 잡아 2차 생산물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젓소와 육우 농장을 조성했던 이스크라마을과 아랄마을에는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밀공장과 우유공장, 육가공 공장, 소공장이 들어서고, 코쉬코르곤마을의 사과 과수원에서는 사과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악바샤트마을에는 양계장과 소를 이용한 축산 산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모든 과정을 마을 새마을회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선택권과 운영 그리고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한 덕분이었다.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낚는 법을 전수한 것이었다.

이들 마을은 씨족사회의 전통이 강해 'Ashar(협동)'이라는 공동체인식이 잘 형성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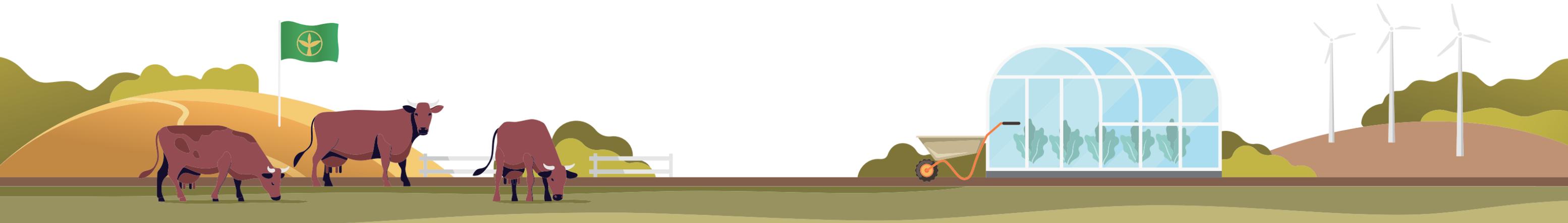
3
아랄마을 비닐하우스 사업



4
악바샤트마을 축산 사업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큰 영향을 발휘했던 공동체 활동이 주효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사업이 다시 한번 마을에 이어질 경우, 시범마을 모두가 재참여 의지가 높다는 것과 지도자 양성, 주민조직과 주민교육이 잘 이루어진 덕분에 초기 초청 연수자들뿐만 아니라 이후 양성된 새마을회원들까지 모두 새마을 지도자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청년층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했다.

이들 1차 시범마을의 훌륭한 성과로 2021년 1차 네 개 마을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을 졸업했다. 곧이어 2차로 오록, 오를리노예, 탐가, 악자르의 네 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새마을운동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식집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고양이 집사, 댕댕이 집사에 이어 식집사가 등장했다. 말 그대로 반려 식물을 키우는데 정성을 쏟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식집사 역시 늘어나고 있다. 반려 식물로 집안을 꾸미는 동시에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어 각광받는 플랜테리어에 대해 알아보자.

글. 이소연





친환경 라이프의 시작, 반려 식물 키우기

반려 식물을 키우는 일은 반려 동물보다 여러 면에서 접근이 쉽다. 근처 화원이나 마트에서 마음에 드는 식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더러 별도의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식물을 구입했다면 시작은 물을 주는 것부터다. 여기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양분인 햇빛과 바람만 있다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키우다 보면 영양제를 사서 꽃기도 하고, 더 좋은 화분과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기 위한 비용이 들긴 하지만, 동물을 키우는 일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일은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식물의 잎에서 내뿜는 각종 음이온과 산소로 전자파와 미세먼지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또 소리 없이 곳곳하게 자라는 식물을 보며 느끼는 정서적 안정 효과도 훌륭하다. 반려 식물을 키우는 대다수의 사람이 식물을 키우는 가장 큰 장점으로 심리적 안정을 꼽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세는 플랜테리어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를 합한 단어다. 최근 많은 카페나 음식점, 전시관 등에서 인테리어 요소로 플랜테리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도시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고 흙냄새나 나무 냄새, 꽃향기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한 힐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식물은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꾸어 주지 않아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물들의 성장이나 자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날이 새로운 느낌을 낼 수도 있다. 평소 집이나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바꿔보고 싶지만 엄두가 나질 않고 그냥 두자니 아쉬울 때 작은 식물 하나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식물을 키우는 것에 소질 없다는 사람도 싱그러운 식물을 볼 때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분 전환 겸 반려 식물 하나쯤 들일까 고민이라면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플랜테리어는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를 합한 단어로, 도시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어 인테리어 요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플랜테리어, 이것만은 기억하자

플랜테리어는 말 그대로 반려 식물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인데,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인테리어 효과나 힐링은 커녕 애꿎은 식물만 죽이는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일단 반려 식물을 들여 플랜테리어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래 몇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자.

첫째, 식물의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생각보다 식물은 장소에 민감하다. 적당히 별도 들어야 하고, 온도도 맞아야 한다. 무엇보다 바람이 잘 통해야 반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둘째, 나와 잘 맞는 식물을 골라야 한다.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햇빛이나 바람 등은 내 힘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물주기는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다. 식물에 따라 자주 물을 줘야 하는 식물이 있는 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줘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 예를 들어 자주 깜빡하는 편이거나 혹은 출장이 잦은 편이라면 자주 물을 줘야 하는 식물보다는 가끔 물을 줘도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해야 실패 없이 잘 키울 수 있다.

셋째,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기 좋아야 하므로 화분의 디자인도 중요하다. 화분을 고를 땐 화분을 둘 곳의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 식물의 수형에 따라 어울리는 모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초보 식집사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함

잘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들었지만 막상 식물을 들고 나면 건강하게 키우기란 마음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화분의 위치도 잘 잡아주고 물도 알맞게 준 것 같은데 시름 시름 앓기 시작하는 반려 식물을 보고 있노라면 애가 타기 마련.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듯 식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빠르게는 가까운 꽃집이나 화원을 들러도 좋고, 여의찮다면 반려 식물 관련 도서나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반려 식물과 관련한 플랫폼이나 호텔, 병원 등의 서비스도 생겼다고 하니, 플랜테리어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빛이 나오거나 자동으로 물을 주는 등의 식물생활가전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식물 병원이나 식물생활가전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반려 식물에게 꾸준한 애정을 주고 가꾸는 마음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애정을 주는 것만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아침저녁으로 말을 걸어 주었던 식물이 훨씬 행복하게 잘 자란다는 과학적 실험 결과들도 있다.

나를 위한 반려 식물 키우기라는 소소한 행복을 넘어 환경 실천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뿌듯함도 느껴 볼 겸, 플랜테리어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

재활용을 이용한 플랜테리어 활용 Tip

 <p>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생수병, 테이크아웃 컵 등 생활 속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꽤 훌륭한 화분으로 쓰일 수 있다.</p>	 <p>일회용 주사기, 물 약병 식물에게 액체로 된 영양제를 줄 때 일회용 주사기나 물약병 등을 사용하면 눈금으로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섬세하게 주입할 수 있다.</p>
 <p>깡통 다양한 크기의 깡통은 플랜테리어의 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준다.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오래된 깡통이나 수입 식재료가 든 깡통을 눈여겨보자.</p>	 <p>우유 팩 코팅지로 만들어진 우유 팩은 씨앗이나 모종을 키우기에 안정맞춤이다. 우유 팩에 남은 잔여 우유는 물을 넣어 잘 섞으면 훌륭한 비료가 된다.</p>

중앙회 소식



1. 2023 도미니카공화국 새마을운동 초청연수(7.18.~27.)

중앙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주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마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운동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마을 사업 모범 사례를 공유해 도미니카공화국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2.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해단식 및 지도교수 워크숍(8.11.)

중앙회는 지난 8월 11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의 성공적인 활동 종료 소식을 알리는 해단식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주간 피지와 키르기스스탄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펼친 제1기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건물 기초 공사, 도색과 벽화 그리기 등 마을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보건교육과 이·미용 봉사, 현지 어린이를 위한 예체능 교육과 태권도, K-POP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이날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50여 명과 시도 새마을회 사무처장, 대학새마을동아리 해외봉사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새마을동아리 지도교수 워크숍도 함께 개최했다.



3.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교육(8.18.~19.)

중앙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과정으로 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에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주요 활동사례 공유 및 실천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4. 피지 새마을운동 초청연수(8.18.~31.)

중앙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지속 가능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피지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마을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새마을교육 기간 동안 피지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과 추진전략을 배우고, 분임토의와 액션플랜 수립,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활동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피지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현지화 방안을 모색했다.

시·도 소식

서울 | 제11기 독서문화지도사 양성 과정 운영

문고 서울특별시지부(회장 김민정)는 9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지역공동체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11기 독서문화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본 과정은 전래놀이 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독서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놀이지도 능력 배양과 올바른 교사 가치관 확립 등 역량 있는 새마을문고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 청소년 환경 체험 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새마을회(회장 제종모)는 지난 8월 25일 대학새마을동아리와 함께 영도제일중학교에서 탄소줄이기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 교실 1강에서는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리고, 실천 방안 등을 학생들과 함께 모색해 보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강에서는 에코백을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대구 | 새마을증킹 및 탄소중립 캠페인

새마을지도자대구광역시협의회(회장 김기철)는 지난 9월 5일 관내 일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증킹 활동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영대병원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과 안전 운전 등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시부녀회(회장 채경애)는 지난 9월 7일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김익시)는 지난 8월 4일 충청북도 새마을회관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대전, 충북, 충남새마을회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농촌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및 도서 기증

문고 광주광역시지부(회장 김동노)는 지난 6월 20일 대구 도동서원과 대구 문학관, 이상화 고택 등을 찾아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난 7월 3일에는 동구 공영마당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독서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문고 지산2동분회에 1,0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대전 | 문고회장단 간담회 개최

문고 대전광역시지부(회장 권철원)는 지난 9월 7일 몽도원에서 시·구문고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골든벨을 울려라! 가족 퀴즈대회' 개최와 진행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11월 개최 예정인 국민독서경진대회와 우수동분회 사례발표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했다. 시부녀회(회장 남희수)는 지난 8월 22일 대전지방보훈청에서 개최된 2023 을지연습에 참관해 안보 특강을 듣고, 을지연습장을 견학하였으며, 지난 9월 4일에는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양성평등 기념식 및 제33회 대전시 여성대회에 참석했다.



시·도 소식

울산 | 제7기 독서문화지도사교육 수료식 개최

문고 울산광역시지부(회장 김애자)는 지난 7월 12일 새마을회관에서 제7기 독서문화지도사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개강해 총 11회 33시간 동안 마을문고운동의 이념과 발달 과정 강의, 전래놀이 지도 방법, 현장실습 등으로 진행됐고, 전래놀이지도사 1급, 2급 자격증이 수여됐다.



세종 | '함께해요! 반려 식물이 있는 정원의 참도락' 사업 전개

문고 세종특별자치시지부(회장 조철환)는 지난 9월 6일 관내 연양초 6학년 아람반 학생들과 '함께 해요! 반려 식물이 있는 정원의 참도락'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자라나는 미래세대 주인공인 초등학생들과 함께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다육식물을 심는 활동으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 | 건강한 의사소통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추진

경기도새마을회(회장 송재필)가 '배움의 시작, 꿈꾸는 경기'를 모토로 운영 중인 경기도새마을대학에서는 지난 6월 26일과 7월 3일에 각각 1차, 2차 건강한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3차 교육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가족공예 강연이 이어졌다. 또,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양주시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에서 2023 시군 지도과장 회계 및 직무교육이 있었다. 시·군새마을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도내 31개 시·군 지도과장 37명이 참가해 회계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



강원 | 라오스 지구촌새마을운동 실시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백상원)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3 라오스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했다. 반퐁캄, 반나컨, 반쟁 3개 새마을 시범마을을 찾은 협의회 회장단과 회원들은 비가림하우스 40개 동을 개·보수했다. 부녀회(회장 전미영)는 지난 9월 1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16회 다문화가족 듀엣가요제를 열고 모범가정 및 유공자 시상과 노래 경연을 펼쳤다. 문고(회장 김찬윤)는 지난 9월 1일 횡성문화원에서 제4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했다.



충북 | 2023년 라오스 국제협력사업 추진

충청북도새마을회(회장 이화련)는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 폰커마을 폰커초등학교를 찾아 국제협력사업을 펼쳤다. 16명이 참가한 이번 사업은 폰커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붕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화장실과 놀이터 설치, 책상과 의자 교체, 도색작업 등을 실시했다. 지난 7월 24일과 8월 7일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각각 성금 300만 원과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다.



충남 |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용)는 지난 7월 26일에는 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녀회(회장 임순복)는 지난 8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 및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했다. 도정 정책 방향과 민관합치 리더의 역할에 관한 특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이수 후 친환경 주방세제 제작도 체험했다.



전북 | 수해 현장 찾아 도움의 손길 내밀어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지난 7월 25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회장단과 회원들은 이재민과 봉사자들의 식사를 위해 익산 망성면 나바위성당에서 음식과 도시락을 준비해 생수와 함께 전달했다.



전남 | 새마을운동 현장 체험 및 생태하천 복원 운동 전개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는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새마을 테마공원과 역사관 등 경북 포항과 구미에 위치한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찾는 '경북 문화기행'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전남 22개 시군협의회와 경북 22개 시군협의회는 새마을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결연식도 함께 개최했다. 협의회(회장 박창덕)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소하천을 찾아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도 실시했다.



경북 | 2023 경북·전남 대학생 새마을동행 추진

경상북도협의회(회장 조성현)는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이귀남)와 함께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에서 2023 경북·전남 대학생 새마을동행 '대새야 함께 나누자! 즐기자! 하나 되자!'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경북·전남 대학새마을동아리를 포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과 회원 간 연대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갈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강화 워크숍도 진행했다.



경남 | 2023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

경상남도새마을회(회장 안화영)는 지난 8월 8일 양산시 원동면 대리마을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활동을 펼치고, 과일, 떡 등 음식을 대접했다. 또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동원유스호텔 통영에서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남동현) 회원들과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청년새마을운동의 필요성과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퍼스널 브랜딩 전략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자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주도 | 독서문화 조성 및 청년새마을연합회 새마을 줌깅

문고 제주특별자치도지부(회장 유철수)는 지난 9월 6일 책 읽는 제주, 독서문화 진작을 위해 '북향기 가득한 제주 만들기' 개설키를 열고 제주시산림조합(조합장 김근선에) 책장과 도서를 비치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새마을연합회(회장 장지웅)는 8월 27일 법원포구에서 속골까지 건강과 지구를 지키는 새마을줌깅 활동을 펼쳤다.



이북5도 | 남북산림협력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이북5도 평안북도지회(회장 김인철)는 지난 8월 22일 산림청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북협력을 토대로 한반도의 생태를 보전하고, 접경지역의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양묘장 설명과 현장답사가 있었으며, 통일 후 고향 재건을 위한 '나의 통일에 관한 열띤 토론도 이루어졌다.



현장은 지금

공동체 문화 조성

- 서울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지영환)는 지난 7월 27일 청주시 오송읍에서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 하우스의 폐기물 수거 작업 및 도로 난간 부유물 제거에 힘을 보탰다.



- 서울 중랑구 망우3동부녀회(회장 조선애)는 지난 8월 11일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저소득 및 홀몸 어르신 80명을 위한 '건강밥상 삼계탕 나눔' 사업을 펼쳤다.
- 문고 서울 강북구 수유1동지부(회장 김옥진)는 지난 7월 26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을 진행했다.
- 서울 강북구 미아동협의회(회장 김희춘), 부녀회(회장 조준희), 문고(회장 장은숙)는 지난 7월 12일 주민센터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 120명에게 '초복 맛이 삼계탕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서울 노원구새마을회(회장 김오규)는 지난 8월 14일 관내 백화점 앞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100여 명의 시민에게 태극기를 전달했다.
-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협의회(회장 신현철)는 지난 8월 8일 관내 경로당 9곳을 방문해 냉난방기 및 전기시설 등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을 전달했다.
- 서울 마포구 도화동부녀회(회장 조현옥)는 지난 7월 13일 주민센터에서 초복을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 52명에게 추어탕 104인분을 전달했다.



- 인천 중구 개항동협의회(회장 조세옥)와 부녀회(회장 이영신)는 지난 8월 14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소외계층 2세대를 방문해 주방가구 및 벽지, 장판 교체와 집 청소, 분리배출 등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주거환경 조성을 진행했다.
- 인천 동구 화수2동부녀회(회장 김인숙)는 지난 8월 31일 관내 복지 사각지대 이웃 및 홀몸 어르신 100세대에 '사랑의 불고기 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금창동부녀회(회장 이미지)는 지난 8월 23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무더위 취약계층 10가구를 방문해 선풍기 10대 및 생수 320병을 전달했다.
-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회장 유기선)는 지난 7월 28일 충북 괴산군 호우 피해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송의1·3동부녀회(회장 양수진)는 지난 9월 4일 관내 경로당에서 홀몸 어르신 30명에게 음식을 만들어 전달했다.
- 인천 연수구새마을회(회장 김경식)는 지난 7월 3일 회관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소외계층 500세대에게 '희망자람 계절 김치 나누기' 사업을 통해 오이지(4kg) 500상자를 전달했다. 부녀회(회장 탁경옥)는 지난 8월 24일 새마을회관에서 고령인 여성 30명과 함께 한국 음식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한식 교실을 진행했다.
- 직장·공장 인천 남동구협의회(회장 엄정도)는 지난 8월 6일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취약계층 15세대에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 강원 원주시 일산동부녀회(회장 조경애)는 지난 8월 25일 관내 요양원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난타 공연 및 치매 예방 놀이 등 '찾아가는 재능기부 공연'을 실시했다.
- 강원 강릉시지회(회장 전제철)는 지난 9월 6일 강남축구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어르신 300명을 초청하여 '2023 새마을운동 한마음 효잔치'를 개최했다.
- 강원 동해시부녀회(회장 김옥자)는 지난 8월 22일 강원 정선군으로 관내 어르신 21명을 모시고 '추억 나누기 희망 노을 나들이' 사업을 실시했다.
-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이영철), 협의회(회장 김장환), 부녀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8월 14일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을 펼쳤다.
- 강원 삼척시 성내동부녀회(회장 이영자)는 지난 8월 19일 회관에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80세대에게 육식용품 및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서울·인천·강원

- 강원 홍천군부녀회(회장 박순옥)는 지난 8월 25일 새마을회관에서 2023년도 '아이웃음 희망홍천' 사랑 가득 출산용품 나눔 사업으로 신생아 이불 60채를 60세대에게 전달했다.



- 강원 양양군부녀회(회장 김옥매)는 지난 8월 30일 양양일출예식장에서 관내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새마을며느리봉사대 '희망노(老)을 밥상·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했다.

탄소중립 실천

- 문고 서울 중랑구 중화2동분회(회장 차명예)는 지난 8월 28일 새마을회관에서 문고 이용자 대상으로 독서 활동과 나만의 한지 무등 만들기를 진행했다.
- 서울 성북구부녀회(회장 조영남)는 지난 8월 31일 정릉시장 일원에서 기후 위기 극복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황두문)와 부녀회(회장 이종선)는 지난 8월 14일 관내 백화점 인근 대로변에서 중계그린공원까지 '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 함께해요!'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서울 마포구지회(회장 박정환)는 지난 7월 19일 마포구청역 사거리와 홍제천 인근에서 관내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탄소 줄이기 및 하천 수질개선 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 서울 강서구부녀회(회장 이양자)는 지난 7월 27일 화곡중앙골목시장 인근에서 투명 페트병을 3개 이상 가져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너 손수건 등을 지급하는 탄소중립실천 지역 주민 환경 생활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인천 남동구새마을회(회장 신대협)는 지난 7월 25일 소래포구시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부녀회(회장 황금덕)는 지난 8월 24일 관내 버려진 아이스팩 220개, 페트병 560개 등을 수거하여 분리 작업을 실시했다.
- 인천 동구새마을회(회장 김민철)는 지난 7월 15일 한국폴리텍

대학교 남인천캠퍼스에서 지구 위기, 생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퀴즈콘벤트 대회를 개최했다.



-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이부중)는 지난 9월 1일 공촌천에서 생태하천 가꾸기 및 환경정화를 위해 미꾸라지 170kg을 방류했다.
- 강원 춘천시 북산면부녀회(회장 정순기)는 지난 8월 30일 회관에서 수거된 아이스팩 700여 개를 선별 세척 후 건조 포장 작업을 진행했다.
- 강원 강릉시 내곡동협의회(회장 우용근)는 지난 8월 21일 관내 태풍 피해지역의 쓰레기 수거 및 화단 정비 등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강원 속초시새마을회(회장 이영철)는 지난 8월 9일 관내 폐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해 페트병, 폐건전지, 우유팩 및 멸균팩, 폐의약품 등 40kg을 수거했다. 청호동부녀회(회장 유옥춘)는 지난 8월 17일 관내 노인정을 찾아 관내 어르신 3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고,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페페트병 10kg을 수거해 분류했다.
- 강원 삼척시지회(회장 김석준)는 지난 7월 8일 삼척해수욕장 일대에서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해 쓰레기봉투 75L 12개·일반 포대 20개 등을 수거했다. 청년새마을연대(회장 허경무)는 지난 8월 5일 회관에서 관내 페페트병 73kg을 수거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분리수거를 했다.



- 강원 홍천군새마을회(회장 이강권)는 지난 7월 20일 중앙시장에서 탄소중립실천 '2023 롤리플리마켓'에 참여해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200벌을 판매했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공동체 문화 조성

- 부산 중구새마을회(회장 이형목)는 지난 7월 28일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관내 5개 동 차상위계층 세대에서 수거한 이불 23여 채를 세탁 · 건조한 후 전달했다.



- 부산 동구새마을회(회장 이남희)는 지난 8월 31일 구청(수정시장)에 주차한 이동식 새마을세탁 차량에서 수거한 이불을 세탁 · 건조하여 전달하는 '세탁 나눔' 활동을 펼쳤다.
- 부산 영도구새마을회(회장 유광희)는 지난 9월 1일 구청 주차장에서 세탁 차량을 이용해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10세대 이불 20채를 세탁 · 건조해 전달했다.
- 부산 남구 감만2동부녀회(회장 이은숙)와 우암동부녀회(회장 장순애)는 지난 8월 29일 소화영아원을 찾아 위생과 안전을 위한 청소 및 정리 활동을 벌였다.
- 부산 북구부녀회(회장 유선희)는 지난 9월 5일 구청에서 '사랑의 계절 김치' 사업으로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300세대에 전달했다.
- 대구 중구 성내2동부녀회(회장 이영순)는 지난 8월 4일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 설렘축제를 찾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수박화채를 만들어 생수와 함께 전달했다.



- 대구 서구 평리6동협의회(회장 박태경)와 부녀회(회장 채영희)는 지난 8월 3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관내 어르신 120세대에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 대구 군위군새마을회(회장 오종원)는 지난 9월 5일 삼국유사면 회수2리 경로당에서 관내 어르신 20분을 초청해 국수를 대접했다. 군위읍부녀회(회장 이연기)는 지난 8월 31일 관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활동을 실시했다.
- 울산 중구 우정동협의회(회장 배기출)와 부녀회(회장 김순애), 문고(회장 이정복)는 지난 9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라면 1,100개를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 울산 남구 신정5동부녀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9월 1일 관내 일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업으로 계절 김치를 담가 42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성남시협의회(회장 송봉식)는 제헌절을 맞아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관내 50개 동에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 경기 부천시 범안동협의회(회장 주이선)는 지난 9월 6일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세대를 찾아 벽지와 베란다 방충망, 장판 등을 교체하고, 전기 안전 점검과 청소를 실시했다.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동협의회(회장 전선표)와 부녀회(회장 박국희)는 지난 8월 29일 김치와 밑반찬 등을 만들어 관내 저소득층 30세대에 전달했다.
- 경기 화성시새마을회(회장 조중애)는 지난 7월 19일 새마을회관에서 2,000kg 상당의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주민을 위해 김치 40통, 쌀 50포대, 성금 200만 원을 괴산군새마을회에 기탁했다.
-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윤진석)는 지난 8월 29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마을러브하우스 사업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 세대를 찾아 벽지와 장판을 교체했다.
- 경기 남양주시 다산2동협의회(회장 이영모)와 부녀회(회장 문미선)는 지난 8월 18일 새마을회관에서 고추장 200kg을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청사 미화원 및 관내 경로당 18개소에 전달했다.

부산 · 대구 · 울산 · 경기 · 세종 · 제주 · 이북5도

- 경기 시흥시새마을회(회장 김근환)는 지난 8월 23일 한우 소고기 350상자(㈜과연미트 후원)를 관내 중증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시설, 외국인 경로당, 봉사단에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제주도 삼양동협의회(회장 홍왕유)와 부녀회(회장 양혜숙)는 지난 9월 3일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설물 이용을 위해 관내 버스 정류장 방역소독과 청소를 실시했다.



- 부산 중구 남포동협의회(회장 박수철)는 지난 7월 30일 줍깅데이를 맞아 관내 유라리 광장부터 자갈치 시장, 비포광장까지 쓰레기를 줍고,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 부산 서구 대신동협의회(회장곽문갑)와 부녀회(회장 김은이), 문고(회장 박민혜)는 지난 8월 16일 잡초 제거와 방역 소독 등 관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협의회(회장 윤장근)는 지난 9월 2일 주택가, 놀이터, 공용시설 등 관내 전역에서 방역 활동을 펼쳤다.
- 부산 동래구 사직1동부녀회(회장 한양근)와 명정2동부녀회(회장 강윤희)는 지난 8월 23일 각각 관내 일원에서 줍깅 활동을 펼쳐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 울산 남구부녀회(회장 배순호)는 지난 9월 6일 탄소중립 실천으로 새마을회관에서 EM(유용미생물군) 주방세제와 어성초 비누를 만드는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 울산 중구 반구2동협의회(회장 박용대)는 지난 7월 25일 구교소

- 공원에서 새마을 장미아치 꽃밭을 가꾸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 대구 중구부녀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8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 친환경 EM(유용미생물군) 치약을 만들고,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 대구 동구 공산동협의회(회장 전성진)와 부녀회(회장 우명순)는 지난 9월 5일 한실골 일원에서 새마을 줍깅 활동을 펼쳤다. 같은 날 안심4동협의회(회장 권진흠)와 부녀회(회장 반미진)도 반야월 우체국 앞에서 새마을 줍깅 활동을 실시했다.
- 대구 남구부녀회(회장 임옥희)는 지난 8월 24일 새마을회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EM(유용미생물군) 치약을 만드는 친환경 교실을 진행했다.
- 경기 고양시 일산3동부녀회(회장 엄선자)는 지난 8월 1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초록환경교실을 운영했다.
- 경기 광명시 하안3동협의회(회장 김동준)와 부녀회(회장 백명순)는 지난 8월 8일 해충 퇴치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상업지구와 하수구 등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송태일)는 지난 7월 17일 금학천과 경안천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관내 환경정비를 위한 하천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경기 안양시새마을회(회장 김의중)는 지난 8월 18일 안양천 맑은 물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EM(유용미생물군) 흙공을 만들었다.
- 경기 평택시 통북동협의회(회장 이석주)와 부녀회(회장 손동옥)는 지난 8월 31일 추석맞이 관내 환경정비 활동으로 도로변 제초작업과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했다.
- 경기 김포시 대곶면부녀회(회장 채미애)는 지난 9월 5일 관내 공원과 주요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공동체 문화 조성

• 대전 동구 관암2동부녀회(회장 박인숙)는 지난 8월 24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의 이불을 수거 후 세탁·건조하여 전달하고, 말벗을 해드렸다. 삼성동부녀회(회장 황옥정)도 지난 8월 25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맥 이불을 수거해 세탁·건조하여 전달했다.



• 광주 서구 풍암동협의회(회장 장병철)와 부녀회(회장 황경희)는 지난 9월 2일 전원교회에서 경로당 어르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사랑의 영양식 나눔' 사업을 개최했다.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협의회(회장 오준진)와 부녀회(회장 김경애)는 지난 8월 31일 행정복지센터에 수해 복구 성금 1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32개 마을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라면, 커피, 두유)을 전달했다. 오창읍협의회(회장 박중무)와 부녀회(회장 정진환)는 지난 8월 30일 수해·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5세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8월 '보듬사랑데이'를 운영했다.

• 충북 충주시새마을회(회장 장상규)가 지난 8월 1일 충주시청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수재의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 직장·공장 충북 제천시협의회(회장 박경배)는 지난 8월 29일 금성면 사곡리에서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기적, 사랑의 집 짓기' 제1호 준공식을 했다.



• 충북 보은군새마을회(회장 황선영)는 지난 7월 25일 속리산국립공원 내 조각공원에 소설, 수필, 시사, 교양 도서 등 700여 권의 도서를 준비하여 '숲속의 도서관' 피서지 문고를 개소했다.

• 충북 영동군 용산면협의회(회장 김상희)는 지난 8월 6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 맥을 찾아 도배를 새로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집 고쳐주기' 사업을 했다.

• 충남 천안시 불당1동부녀회(회장 정현정)는 지난 9월 4일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업을 펼치고 동태전, 잡채, 소고기뭇국 등 명절 음식을 전달했다. 부성동부녀회(회장 방연화)는 지난 8월 26일 관내 휴경기 일원에서 김장용 무와 배추 1,000여 포기를 심는 '사랑의 배추 심기' 사업을 펼쳤다.

• 충남 공주시 용진동협의회(회장 송지양)와 부녀회(회장 박대순)는 지난 8월 29일 관내 유희부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1,200포기의 배추 모종을 심는 경작 활동을 펼쳤다.



• 충남 아산시 온양6동협의회(회장 전상신)와 부녀회(회장 조병남)는 지난 8월 22일 좌부1통 마을회관에서 미용사 2명의 재능기부를 받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4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활동을 실시했다.

• 충남 서산시 성연면협의회(회장 김광희)와 부녀회(회장 이난혜)는 지난 9월 4일 평리 일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에 사용될 배추 모종 3,000여 포기를 심었다.



• 충남 당진시지회(회장 한민섭)는 지난 8월 2일 시회장단을 비롯한 읍면동회장, 남녀지도자 40여 명과 당진시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논산시 성동면 멜론 재배 농가를 찾아 복구 지원에 나섰다.

대전 · 광주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북 안동시 태화동부녀회(회장 신현순)는 지난 8월 27일 태장금(태화동요리재능기부팀)을 결성하고 마을복지추진단원이 기부한 식재료를 이용해 반찬 4종을 만들어 관내 형편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과 청·장년 27세대에 전달했다.

• 경북 영주시부녀회(회장 정경자)는 지난 9월 4~5일 자원봉사센터 무료급식소에서 배고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 경북 영천시부녀회(회장 최분순)는 지난 8월 31일 금호읍 덕성리 새마을농장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김장용 배추 모종 3,000포기를 심었다.

• 경북 상주시새마을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8월 1일 경북 북부지역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예천군 피해 가구를 찾아 침수된 가재도구 정리와 쓰레기 수거, 주택으로 유입된 토사를 걷어내는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 경북 경산시 서부1동협의회(회장 유후종)와 부녀회(회장 이영애)는 지난 8월 30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화장실 변기와 노후화된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경산시협의회(회장 강홍준)는 지난 8월 5일~13일 경산역, 시청 앞, 경산오거리에서 주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얼음 생수를 무료로 배포했다.



탄소중립 실천

• 대전 중구 문화2동부녀회(회장 염은경)는 지난 8월 14일 마을공동체 사업 '분리수거는 우리에게 맡겨라'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2동 관내 10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했다.



• 광주 동구새마을회(회장 박현조)는 지난 9월 5일 지회사무실에서 오염되지 않은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협의회(회장 류간형)와 부녀회(회장 서정신)는 지난 8월 18일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 각종 쓰레기로 인해 지저분해진 관내 일대 가로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환여동부녀회(회장 고경선)는 지난 8월 27일 장미꽃밭과 연산홍꽃밭 풀매기 활동을 실시했다.



• 경북 경주시 용강동협의회(회장 천지용)와 부녀회(회장 문명숙)는 지난 9월 3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구곡지 일원 산책로와 상가 인근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했다.

• 경북 김천시 감천면협의회(회장 박중화)는 지난 8월 31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국도 59호선을 비롯한 마을 진입로, 개나리 방천 및 소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도로변을 정비했다.

전북 · 전남 · 경남

공동체 문화 조성

• 전북 정읍시새마을회(회장 김학구)와 정읍청바지청년새마을연대(회장 송화수)는 지난 8월 22일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실시했다. 덕천면부녀회(회장 이정원)는 지난 8월 28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효(孝)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전북 김제시 청하면부녀회(회장 이미자)는 지난 8월 30일 관내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해 화장지와 세제를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사랑의 생필품 나눔' 사업을 펼쳤다.

• 전북 완주군 우석대새마을동아리(회장 양승진)는 지난 8월 31일 새마을회관에서 상반기 사업추진 결과 보고와 하반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 전남 목포시 만호동부녀회(회장 진근영)는 지난 7월 25일 선풍기 10대를 구입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경로당 2개소와 취약계층 8세대에 전달했다.

• 전남 나주시부녀회(회장 김순례)는 지난 8월 31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115세대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 전남 구례군부녀회(회장 정연숙)는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에 지난 8월 8일 구호 물품(생수 145상자 · 이온음료 57상자)을 전달했다.

• 전남 화순군 이서면부녀회(회장 박영숙)는 지난 8월 26일 관내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화순군새마을회(회장 곽화열)는 지난 8월 25일 화순군청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화순장학회에 인재 육성 장학기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 경남 진주시 상대동부녀회(회장 정명례)는 지난 9월 6일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 문고 경남 통영시 용남면분회(회장 최미숙)는 지난 8월 8~9일 양일간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즐거운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부채 · 미니 케이크 만들기와 한산대첩을 주제로 한 전통 놀이를 함께했다.

• 경남 양산시새마을회(회장 박종석)는 지난 7월 20일 새마을회 사무실에서 양산새마을청년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청년새마을연대(회장 박상옥)'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8월 8일 원동면 대리마을회관에서 마을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 · 미용 활동을 실시했다.



• 경남 거제시지회(회장 조문석)는 지난 8월 22일 충북 진천군 새마을회(회장 남재호)와 거제시지회 회의실에서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 · 번영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탄소중립 실천

• 전북 전주시 우아2동부녀회(회장 문영덕)는 지난 8월 17일 중상보공원에서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전북대새마을동아리(회장 안대훈)는 지난 8월 16일 전북대 알림의 거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 전북 익산시새마을회(회장 장오준)는 지난 8월 23일 원광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동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전북 · 전남 · 경남

함께 버려진 스티로폼을 활용한 '미니정원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 전남 여수시 미평동협의회(회장 김유문)와 부녀회(회장 임혜정)는 지난 8월 26일 죽림천변 일대에서 풀베기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여서동협의회(회장 유종율)는 지난 8월 20일 폭염으로 인한 악취제거를 위해 텃밭삼터 입구와 주차장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결 활동을 펼쳤다.

• 전남 광양시 옥곡면협의회(회장 정철기)와 부녀회(회장 오경숙)는 지난 8월 19일 이장협의회 등 관내 7개 자생단체 회원들과 신금산단 내 주요 도로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도로변 생활 쓰레기 3톤을 수거했다.

• 전남 순천시 상사면협의회(회장 최낙삼)와 부녀회(회장 박숙희)는 지난 8월 28일 관내 폐농약병 수거 활동을 펼쳤다. 순천시부녀회(회장 이연숙)는 지난 9월 4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 전남 담양군 고서면협의회(회장 조동선)와 부녀회(회장 추경자)는 지난 8월 29일 문예회관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전남 곡성군새마을회(회장 김영중)는 지난 7월 28일 레저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 및 곡성군연합회 회원들과 홀몸 어르신 ·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행복안심밥상 발대식을 갖고 매월 2회씩 밑반찬을 전달할 예정이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부녀회(회장 제쌍미)는 지난 8월 17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진해희망의집 아동과 13개 동부녀회장단 등 35명과 함께 '2023 사랑을 가꾸는 가족 교실'을 개최했다.



• 경남 통영시새마을회(회장 임명률)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투명 페트병과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운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수거망 배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남 진주시 성북동협의회(회장 강옥춘)와 부녀회(회장 김현숙)는 지난 9월 5일 봉곡광장 사거리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아이스팩의 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 경남 사천시새마을회(회장 정경수)는 지난 8월 25일 선진공원 주차장에서 '2023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에는 사천시청년새마을연대(회장 김정우)와 서포면 다평체험마을 일원에서 환경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청년과 함께하는 쓰담쓰담 줍깅데이' 활동을 펼쳤다.



지구촌새마을운동

• 경남 김해시지회(회장 이강은)는 협의회(회장 지상무), 부녀회(회장 최잠조), 직 · 공장(회장 이정수), 문고(회장 장미옥)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14~18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해 포시마을, 나싸이팅구, 비엔티안시 등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기증하는 '2023 지구촌새마을운동 해외협력화' 사업을 추진했다.



새마을 통통통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7+8월호 독자 의견 당첨자

이지훈

숫자로 살펴보는 새마을운동기록물 이야기 잘 보았습니다. 특히 잘 보존된 아카이브는 새마을운동을 후세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의 개도국에 전달할 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차현

처음 접한 <새벽종>에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구슬땀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소식을 보니, 새마을정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장미우

<새벽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늘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

청년들이 만들어 갈 새로운 미래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 출범 소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를 개척할 주인공인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앞으로의 새마을운동과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새벽종>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시

초록바람, 추억이 되다! 희망이 되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청소년교육장

제1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사진전

제2전시

미래 100년을 위한 지구환경 보존 환경미술전



관람시간

월-일(평일 및 주말) 오전 11시~오후 5시

입장료

무료

2023. 09. 13. WED - 10. 27. FRI

권순창

김용기

김태용

정현철

조운서

